



2020년 7월 7일 | Equity Research

7월 상반기 LCD 패널 가격 : 대폭 상승

투자의견

Overwe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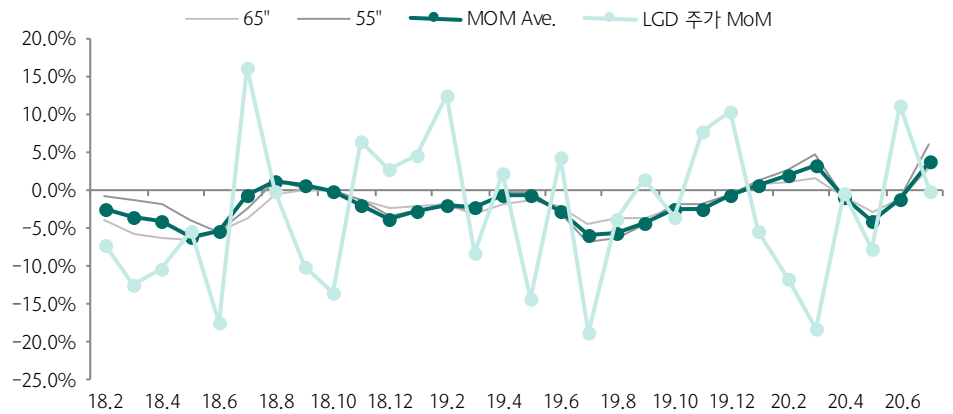
Analyst 김현수

hyunsoo@hanafn.com

2020년 7월 상반기 LCD 패널 고정가격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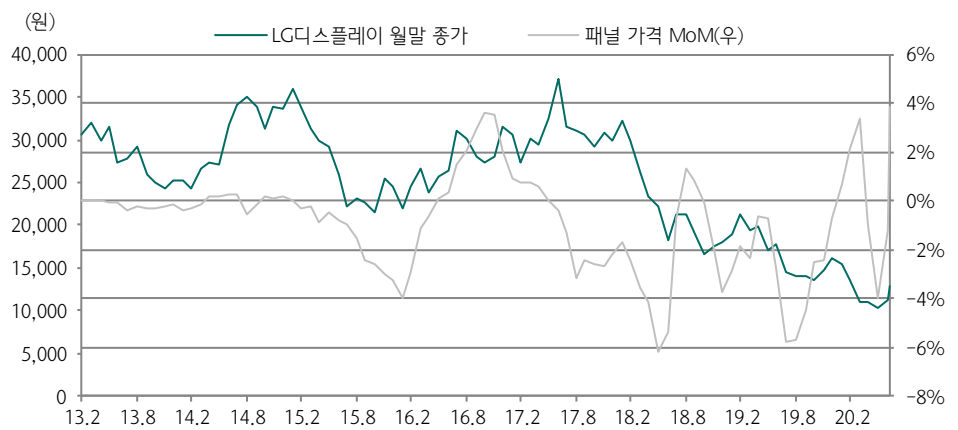
- LCD TV 패널 가격 정리 : 7월 상반기 가격 (6월 하반기 대비 증감률, HoH)
 - 75인치 318달러 (Flat) 2개 반월 연속 Flat
 - 65인치 179달러 (+2.9%) 2개 반월 연속 Flat 이후 상승
 - 55인치 121달러 (+5.2%) 2개 반월 연속 상승(상승폭 확대)
 - 43인치 78달러 (+4.0%) 2개 반월 연속 Flat 이후 상승
 - 32인치 35달러 (+6.1%) 2개 반월 연속 상승(상승폭 확대)
 - 분기 증감률 (2Q20 평균 가격 대비 3Q20 평균 가격 증감률)
 - 75인치 : -1.6%
 - 65인치 : +1.1%
 - 55인치 : +4.0%
 - 43인치 : +1.1%
 - 32인치 : +2.9%
- 1) COVID-19영향으로 부진했던 글로벌 TV 수요 회복세 (YoY 2월 -9%, 3월 -7%, 4월 -22%, 5월 -2%)
 - 2) 한국 패널 메이커 LCD TV Shutdown 지속에 따른 공급 감소로 LCD TV 패널 가격 큰 폭 상승
 - 3) 전체 TV 패널 시장내 비중 약 15%로 높은 비중 차지하는 55인치의 경우 5.2% 상승하며 역대 최대폭 상승
 - 4) 5월부터 중국, 6월부터 북미 TV 수요 회복 시작되며 패널 가격 상승폭 크게 확대, 중국 시장 가장 크게 상승
 - 5) 최근 5년간 가격 상승 시기는 3번 (2016년 ~ 2017년 12개월, 2018년 2개월, 2020년 3개월)
 - 6)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시 장기간 상승 기조 유지된 바 있음
 - 7) 이번 가격 상승 역시 근본적으로 한국 패널 메이커 LCD TV 라인 Scrap에 따른 공급 감소에 기인
 - 8) LGD : LCD TV 패널 라인의 고 수익성 IT 패널 전환 작업 지속 / SDC : 연말까지 LCD TV 라인 모두 Scrap 계획
 - 9) 한국 LCD Downsizing 및 최근 TV 수요 회복 추세 감안 4분기까지 패널 가격 반등 지속 가능성 높다고 판단
 - 10) 중국 LCD CAPA 증가 감안, 6개월 이상 장기 패널 가격 상승세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
 - 11) LG디스플레이의 경우 고수익 제품으로의 전환 가속화 및 모바일 OLED 수율 개선으로 3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

그림 1. LCD TV 패널 가격 및 LGD 주가 일별 증감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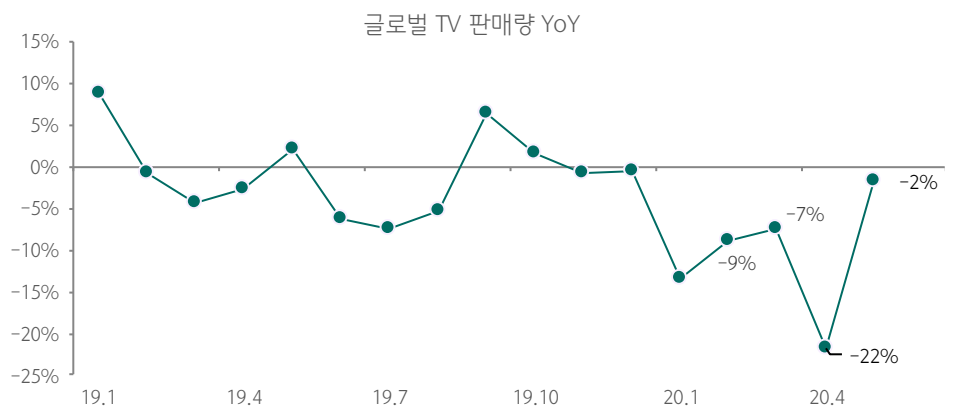
자료: Omdia, 하나금융투자

그림 2. LGD 주가 및 LCD TV 패널 가격 일별 증감을 추이



자료: Omdia, 하나금융투자

그림 3. 월별 글로벌 TV 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

자료: Omdia, 하나금융투자

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

-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

- 기업의 분류

BUY(매수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~15% 등락
Reduce(매도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 이상 하락 가능

- 산업의 분류

Overweight(비중확대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Underweight(비중축소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 이상 하락 가능

투자등급	BUY(매수)	Neutral(중립)	Reduce(매도)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율	90.5%	9.5%	0.0%	100.0%

* 기준일: 2020년 7월 6일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현수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- 당사는 2020년 07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현수)는 2020년 07월 6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